

# 2017년 북한의 산업 동향

이석기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klee@kiet.re.kr

## I. 개관

2017년 북한 산업 및 실물부문에서는 2016년 북한경제의 성장을 이끈 요인들이 모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6년 북한경제에 적어도 중립적으로 작용하였던 기후 조건은, 2017년에는 가뭄으로 농업과 수력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연초부터 9월 정도까지 이어진 가뭄으로 농업 및 수력발전 부문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량의 감소에 따라 전체 전력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 혹은 정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에는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대중무역을 중심으로 무역이 증가하였지만 2017년에는 대중 무연탄 수출이 66% 감소하는 등 무역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수출광업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음에 따라 내수용 광업이 소폭 증가하였음에도 광업 전반의 생산 감소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만 2016년 연중 지속된 속도전은 단기적으로 에너지, 광업 및 제조업의 성장을 이끌었는데, 2017년에는 속도전 이후의 조정기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생산 및 투자활동이 둔화되었다. 북한 당국도 경기확장보다는 안정화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계를 제외한 제조업 전반에서 별다른 성과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 부문도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이 새로 시작되지 않는 등 전년에 비해 생산활동이 다소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 기계류 및 원부자재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대북 경제 재제가 수입 축소를 통하여 북한 산업 전반, 특히 제조업에 미친 영향은 아직은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으로 2017년 북한 산업 및 실물부문은 2016년에 비해 소폭 후퇴하거나 정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진은 대북 경제제재보다는 기후와 내부적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노동력과 자원을 조기에 집중 투입하는 속도전이 2016년 내내 추진되었기 때문에 2017년에는 생산 및 투자 활동의 조절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북한 공식매체의 보도 추세 등을 고려하면 조정기의 영향은 연초보다는 하반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물가나 환율의 안정적 관리를 중시하는 김정은 정권으로서의 경제의 안정적 기조를 해칠 수 있는 무리한 정부 주도 사업을 자제했을 가능성도 있다. 건설부문의 상대적 둔화는 이러한 경제 운영 기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연간 지속된 가뭄은 농업과 수력발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뭄에 따른 생산의 후퇴는 2015년보다는 덜 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2017년에 한해서 대북 경제제재는 수출부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지만 북한 산업 전반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대중수출은 37% 줄어들었지만 수입은 4.3%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수입이 21% 감소한 자동차 등 수송기계와 9% 감소한 철강을 제외하고는 기계, 전자제품, 화학제품 및 섬유 등 기계류와 원부자재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유지되었다.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의 제한적인 회복이 대중 기계류 및 원부자재의 수입 증가에 기인한바가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2016년에 비해서는 약화되었지만 대중 자본재 수입의 증가추세가 유지되었다는 점은 대외경제 관계 악화가 2017년 북한 산업 및 실물부문 부진의 핵심 원인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II. 2017년 북한 산업 및 실물 동향

### 1. 전력 및 광업

#### 가. 전력

전력부문은 가뭄에 따른 수자원 부족으로 수력발전량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반면 화력발전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전력부문이 강조됨에 따라 발전소 개보수나 화력탄 공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력발전의 성과 보도가 다시 2015년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으

며, 화력발전은 수력발전보다는 성과 보도가 많고, 구체성도 있지만 2016년보다는 보도 빈도나 구체성이 떨어진다.

수력발전은 2017년 여름까지 지속된 가뭄으로 전년에 비해 발전량이 다소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 추정치 기준으로 2016년 수력발전량이 2015년 수준에 비해 20% 증가하였는데, 2017년에는 2015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발전량이 적지 않게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sup> 노동신문 등 공식매체의 성과 보도도 크게 줄었다. 수력발전 전반의 성과는 연초인 1/4분기의 성과만 보도되었으며, 하반기 이후 부문 전반의 성과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sup>2)</sup> 개별 발전소의 성과 보도도 대부분의 주요 수력발전소의 성과가 보도된 2016년과 달리, 2017년에는 연중 반복적으로 성과가 보도된 서두수발전소나, 1호발전소가 최고 생산연도 수준을 돌파하였다는 백두산청년영웅발전소와 원산군민발전소 정도의 성과가 보도된 정도였다. 중소형 수력발전소의 성과가 예년 수준으로 보도되었지만, 실질적인 성과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화력발전은 사정이 다소 나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7차 당대회에서 전력부문이 강조되고, 제7차 당대회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전력부문이기 때문에 발전 부문, 특히 투입 증가를 통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화력발전 부문에 자원 배분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공식매체도 연초가 아닌 연말에 가까운 11월 16일 기준으로 화력발전 부문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발전량이 20% 증가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sup>3)</sup> 북창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와 평양화력발전소 등 주요 화력발전소 대부분에서 발전성과가 비중 있게 보도되었다. 그리고 대북 무연탄 수출의 중단도 제한적이지만 내수용 석탄의 생산 및 화력발전소용 연료탄의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6년의 300일 가까운 속도전 이후 조정의 필요성은 화력발전소와 탄광 부문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성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대형 수력발전소인 단천발전소 건설이 착공되었으며, 예성강5호발전소 및 어랑천5호발전소 건설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단천발전소 건설 착공은 5월에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원 투입이나 건설 독려 수준이 희천발전소나 백두산청년영웅발전소에 투입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고원군민발전소와 우시2호발전소 등 중소형 발전소들이 다수 건설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북한은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 구축이나 변압기 및 배전선로 개조 등을 통하여 전력 관리 체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1) 북한의 공식매체들도 일부 수력발전소의 성과를 보도하면서 강수량의 부족에 따라 수력발전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반복적으로 보도하기도 하였다.  
2) 반면 2016년에는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수력발전 부문의 성과가 보도되었으며, 2016년 12월 16일에는 200일 전투 목표가 초과 완수되었으며, 매일 평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의 전력을 증산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석기 외(2017), pp.80-82.  
3) '노동신문', 2017. 11. 17.

개발과 활용도 독려하고 있지만 그 강도는 2015, 16년에 비해서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 나. 광업

광업 부문은 대북 경제제재로 대중 무연탄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수출 광업이 전년에 비해 크게 위축되어 내수용 광업이 다소 성장하였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생산이 상당히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월 이후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이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은 전년 대비 66%가 감소하였다. 반면 철광석 수출은 전년 대비 39%가 증가하였지만, 수출 광업에서 무연탄의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수출 광업 전반으로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수출 및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수용 석탄 광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부문인 발전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연료탄 증산 노력이 지속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생산이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4)</sup> 석탄 광업 부문이 타 산업에 비해 성과 보도 빈도가 높지만 2016년에 비해서는 성과 보도 빈도 및 구체성이 떨어진다. 석탄광업 전반의 성과 보도는 6월 21일까지 상반기 계획을 수행하였다는 보도 등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에는 성과보도가 크게 줄어들었다.<sup>5)</sup> 석탄 이외의 광업 부문에서는 대중 철광석 수출이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지만, 내수부문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업 부문 전반의 성과 보도가 없는 가운데, 주력 광산인 무산광산의 생산 성과에 대한 보도가 전무하고, 김덕광업연합기업소의 성과 보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별다른 투자 동향도 파악되지 않았다.

## 2. 제조업

### 가. 중화학공업

2017년 중화학공업 부문은 전년에 비해 생산 및 투자활동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기계 및 원부자재의 수입이 증가하고, 국산화 정책의 지속 등에 따라 기계공업의 생산활동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수력발전의 부진에 따른 전력 공급 감소나 속도전 이후의 노동력 및 물자 투입 둔화 등 부정적인 요인이 더

4) 제한적이지만 수출이 막힌 일부 수출용 탄광이 내수용 생산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연탄 수출 중단은 내수용 석탄 생산에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이는 2017년 북한 산업 전반의 성과 보도의 특징이기도 하다.

우세하였을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전력과 함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부문으로 설정하고 있는 금속부문을 전력 공급의 감소 등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공식매체에서도 금속부문 전반의 성과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으며, 최대 제철소인 김책제철소의 생산 성과가 보도되지 않는 등 생산 성과 보도가 전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다. 황해제철소의 '주체철' 생산 실적에 대한 보도가 2017년 금속부문 성과 보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sup>6)</sup> 주요 제철소 중에는 천리마제강소의 압연강재 및 강철 생산 실적이 보도되었다.<sup>7)8)</sup> 다만, 대중 선철 수출이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는데, 북한 매체는 김책제철소 등의 수출용 제품 생산 실적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속부문의 성과 보도 감소가 생산의 절대적인 감소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sup>9)</sup> 한편, 북한은 김책제철소에 생산 능력이 큰 산소열범용광로와 대형 산소분리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선철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sup>10)</sup> 청진제강소의 새로운 구단광 생산 공정도 비중있게 보도되었다. 화학공업 역시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여, 자력경제를 위한 소재 공급 역량 확충 노력은 여전히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7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을 위하여 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서 메탄을 생산 공정이 건설 중이지만 아직 준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책제철소의 산소열범용광로와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메탄을 생산 공정 건설을 위한 투자는 김정은 집권 이후 발전소 이외에 처음으로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를 한 것이다.

반면 기계공업은 최근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금성트랙트르공장과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는 2015~16년에 각각 신형 80마력 트랙터와 5톤 트럭을 개발하였는데, 2017년에 이들 신형 트랙터와 트럭의 양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sup>11)12)</sup> 이전에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던 이들 공장의 생산활동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내장재 등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활동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연결농기계 등 농업용 기계의 생산이나 어선을 비롯한 선박의 건조도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기계공업 부문은 생산 성과가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보도되었다.<sup>13)</sup> 평양자동차기공공장 등이 포함된 전자공업도 상대적으로 성과가 자주 보도되

6) 황해제철소는 11월 주체철 생산 계획을 완수하였다고 보도되는 등 거의 매월 생산 성과가 보도되었다.

7) 천리마제강소는 8월 말에 연간 압연강재 생산계획을 완수하였으며, 강철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였다고 한다. 『노동신문』, 2017. 9. 11.

8) 그 밖에는 청진제강소와 청진강재공정의 성과가 보도된 정도이다.

9) 북한은 중국에 선철 및 합금철을 수출하고, 강철 및 강철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2011년 1억 5,500만달러까지 증가했던 북한의 대중 선철 수출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2017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무연탄 등 지하자원 수출 통제에 따라 외화 수입을 위해 국내에서도 부족한 선철을 수출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10) 김책제철소의 산소열범용광로는 북한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는 황해제철소의 산소열범용광로보다 생산 능력이 크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능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산소열범용광로는 북한이 전량 수입하는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는 소위 '주체철'을 생산하는 용광로이다.

11) 노동신문은 2017년 10월 21일, 25일에서 각각 금성트랙트르공장과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에서 신형 트랙터 및 신형 트럭의 생산 목표를 완수하고, 시운전과 주행시험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12) 이와 함께 종래 8마력 소형 트랙터를 생산하던 충성호트랙트르공장에서 2017년에 12마력 소형 트랙터를 생산한 것도 비중 있게 보도되었다.

었다.<sup>14)</sup> 시멘트를 중심으로 하는 건설자재공업은 최근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 경공업

경공업은 전력 공급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섬유류의 대중 수입은 증가하는 등 공급 역량에서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지만, 연중 내내 속도전이 진행된 2016년과 같은 생산 확대 추세가 지속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공업 전반이나 섬유·의류, 식품가공 등 부문별 성과 보도가 거의 없는 가운데, 개별 공장의 성과가 일부 보도되었다.<sup>15)</sup> 경공업 부문에서는 생산 성과보다는 류원신발공장이나 평양화장품공장 등 확장·현대화된 공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가방천 생산 공정 등 새로운 생산 공정, 그리고 김치 공장 및 가방 공장의 신규 건설 등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평양화장품공장이나 류원신발공장은 김정은의 현지 지도 등을 통하여 현대화된 본보기 공장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아울러 경공업 분야에서 새롭게 개발된 제품의 선전도 계속 강화하고 있다.

## 3. 건설

건설부문의 생산활동은 전년에 비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북한의 건설 경기를 주도하였던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이 4월 러명거리 완공 이후에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sup>16)</sup> 단천발전소가 새롭게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새로운 생산 설비투자가 시작되었지만 그 강도는 2015년이나 2016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요 설비투자 사업이 2017년 5월 경에야 착공되었으며, 11월에 완공된 김책제철소 산소열법용광로 건설 공사를 제외하고는 진행 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17)</sup> 물길 공사 등 대규모 토목 공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2015, 16년과 같은 대규모 수해복구 사업도 없었으며, 과학기술전당과 같은 대규모 건설 공사도 시작되지 않았다.

13) 『노동신문』, 「기계공업성 산하 20여개 공장·기업소 상반기 공업 총 생산액, 중요 지표별 계획 완수. 2017. 6. 8; 『노동신문』, 「기계공업성 공작기계공업관리국 기업들 연간 경제계획 지표별로 수행, 2017. 11. 26; 『노동신문』, 「채취기계공업국, 9월말 연간 공업총생산액 계획 9% 초과 수행, 2017. 10. 15. 등

14) 『노동신문』, 「전자공업성, 10월 1일까지 연간 계획 4.5% 초과 수행, 2017. 10. 20.

15) 부분별 실적 보도는 평양시 피복공업관리국이 7월 19일까지 연간 계획을 완수했다는 보도(『노동신문』, 2017. 8. 7)나 잠업비단공업국에서 누에 고치를 전년에 비해 수십톤 증산했다는 보도(『노동신문』, 2017. 11. 10) 정도이다.

16) 평양시의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종료하고, 지방의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는 정책기조의 변환 때문인지, 수입 건설자재 수요가 큰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때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 예를 들면 당창간기념일이나 7자당대회를 앞두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조기 완공을 위해 국가적으로 선전·선동하고, 지원한 것에 비하면 7자당대회에서 구체적으로 거명한 단천발전소의 건설 과정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 III. 평가 및 전망

2017년 북한의 산업과 실물부문은 가뭄과 2016년의 강력한 속도전 이후의 조정, 그리고 경제제재에 따른 대외무역의 감소 등으로 전년에 비해 정체 혹은 소폭 후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업과 농업, 그리고 건설업이 부진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전력 및 제조업은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 후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 경제제재는 수출 광업을 중심으로 광업 부문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지만 대중수입이 4.3% 증가하여 북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다만, 8월 이후 자본재의 수입이 줄기 시작하고, 감소세가 지속되어 8월 이후에는 북한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량 부족으로 수력발전량이 다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농업진흥청은 2017년 북한의 농업 생산이 약 2%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2017년에 기후 조건이 북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한국은행 추정치 기준으로 농업과 수력발전이 5%와 20% 감소한 2015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북한 산업 전반에 가장 포괄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2016년에 300일 가까이 추진된 속도전 이후의 조정 필요성인 것으로 보인다. 속도전은 통상적인 목표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노동력과 자원을 앞당겨서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속도전은 일시적으로는 생산 및 투자활동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속도전 종료 이후에는 대부분 상당 기간 동안의 조정기를 거친다. 2016년의 속도전이 김정일 시대의 속도전보다는 그 강도가 낮기는 하였지만 거의 연중 내내 지속되었기 때문에 2017년에 조정기를 거치는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속도전의 후유증을 우려한 결과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이 경기 활성화보다는 안정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 확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도 추진하지 않았다. 속도전의 후유증이나 안정화 정책 기조의 영향은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만리마속도’나 ‘만리마정신’을 강조하였지만 이는 2016년과 같은 속도전이라기보다는 통상적인 경제 선동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조차 연말로 갈수록 언급 비중이 줄어들었으며 ‘만리마정신’에 따른 경제성과를 결산하기 위해 개최하기로 한 ‘만리마선구자대회’는 결국 개최되지 않았다. 다만, 대중 자본재 수입 증가세가 유지되는 등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국산화나 시장화에 대한 정책기조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북한의 산업과 실물부문은 2017년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기계류 및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 북한 산업의 순환에 불가피한 자본재의 대중수입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어 '수출 증대→외화 수입→수입확대→생산 및 투자증대'라는 2000년대 북한경제의 회복 및 성장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여기에 2018년에도 북한 당국은 경기 확장보다는 안정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투자활동은 자제하고 효율성 제고를 통한 생산 확대를 주된 정책기조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2018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부문은 2017년보다 더 후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북한이 어느 정도 생산 역량이 확충된 기계공업을 기반으로 국산화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시장화 정책 기조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북한 산업이 급격하게 침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기계 및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대신에 내부에서 조달하면서 생산 및 투자활동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 부문에서는 생산활동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산업 전반의 질적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머지않아 질의 악화뿐만 아니라 양적 위축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 이석기, 『2016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7년 전망』, 산업연구원, 2017.
- 『노동신문』, 「줄기찬 련속공격전으로 안아온 자랑찬 성과」, 2017. 06. 08.
- 『노동신문』, 「연간계획완수단위들이 늘어난다」, 2017. 10. 15.
- 『노동신문』, 「새형의 트랙토르 생산목표 돌파」, 2017. 10. 21.
- 『노동신문』, 「새형의 화물자동차 생산목표 점령」, 2017. 10. 25.
- 『노동신문』, 「연간 압연강재 생산계획 완수, 강철 생산실적 1.2배」, 2017. 11. 11.
- 『노동신문』, 「전력증산의 불길 세차게 지퍼올린다」, 2017. 11. 17.
- 『노동신문』, 「연간 인민경제계획 지표별로 수행」, 2017. 11. 26.